

# 정의롭고 품위 있는 세상 만들기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최 상 목

사냥해서 채취한 것들을 고루고루 나누어 먹으며 살았던 석기시대 사회에서도 집단의 행동을 이끌고 갈 우두머리는 있었다. 그 시대의 우두머리는 명예와 존경의 대상이었지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는 아니었다. 농경시대로 넘어오면서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인구는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돌아다니며 채집하던 시간 대신 마을에 함께 모여 사는 시간이 많아져 잉여 음식을 축적하게도 되면서 권력과 아울러 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후, 인류는 왕조시대의 몰락을 거치면서 르네상스를 맞게 되고, 인간의 창조정신이 발휘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산업혁명을 거쳐 오늘날의 풍요로운 문명시대를 이룩한 것이다. 문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며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하며 살기도 하고 경쟁과 승리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동물이다. 문명시대의 경제의 속성은 부의 창출과 집중에 있다. 잘 살게 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편엔 부를 빼앗기고 생존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있는 미래사회는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하여 선의의 경쟁을 활발하게 하면서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서로 도우며, 생존을 보장받으며, 소유와 공유가 공존하는 조화롭고 품위 있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동일한 조건을 갖게 되는 경제공동체사회를 이루어 살아 갈 수 있는 이상적 사회를 갈망하고 있다.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려면 이기와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업무능력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 결과에 인한 보상을 받고 만족해한다. 쉴 때는 스포츠와 오락을 통해 경쟁하면서 즐거워하기도 한다. 인간에게 경쟁과 승리욕은 삶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비타민과 같은 것이다. 미래사회에서는 경쟁의 승리자에게 더 많은 부와 행복의 선택권을 넓혀 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사회로부터 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평등하다는 원리는 유전자 진화과정에서부터 증명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평등할 수는 없다. 평등은 앞서 말한 경쟁의 원리와 상충되어 인간의 활력을 소멸시킨다. 인간의 평등은 원초적으로 모두 같이 경쟁할 수 있다는 조건의 평등이며, 또 먹을 것을 나누며, 생존을 보장 받고 있다는 평등일 것이다. 또한 공동체사회의 핵심은 최대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는 것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돕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졌을 때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복지사회의 이상형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는 때로는 무위도식하여 무임승차의 우려로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극히 좋아진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지는 않았다. 앞으로 삶은 여전히 좋아지겠지만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없을거라는 마음 아픈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리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이 삶이 윤택해지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행복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며,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이 기본생활 요건이 충족되면 문화적인 욕구를 상대적으로 추구하기 마련이다. 선진 사회를 규정하는 참된 기준은 경제규모나 사회간접시설 따위가 아니라 섬세하고 정교한 것을 지향하는 품위 있고, 정의로운 사회 가치관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를 말한다. 현대사회는 공동체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점점 해체되고 있는 반면에 새롭고 긍정적인 뚜렷한 가치관이 아직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의 혼란과 규범의 상실로 인해 점점 고독한 군중이 되어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회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기술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사업적 감각이 뛰어나고, 또 특별히 운이 좋은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셈이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불평등에 가장 불리한 조건의 사람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것이다. 개인이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직책과 직위가 개방되어 있는 사회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가치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갖게 해주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주는 사회일 것이다. 사람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간에 대한 모욕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제도가 사람을 모욕하지 않는 사회를 말하며 설령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될 때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정의로운 사회가 반드시 품위 있는 사회여야 한다면 우리는 품위 있는 사회의 실현은 가치가 있는 인간들의 이상일 수도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모두 품위 있는 사회이지만 품위 있는 사회라고 모두가 정의롭지는 않을 것이다.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가능성보다 우선 품위 있는 사회를 만들 가능성이 더 낙관적일 수 있다. 품위 있는 사회는 사회의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지 않는 문화를 지닌 사회를 말한다. 사회 전체의 문화가 어떤 집단적인 모욕적 표현을 자제하고 제한 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가진 사회를 말한다. 언어의 순수함이 곧 마음의 순수함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하는 것을 허락, 용인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만을 허용하는 자세를 갖춘 사회를 뜻한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언제나 언사나 표현을 절제하다 보면 체통을 지키는 길모습만 중요시하는 위선적인 사람이 될 위험성이 없지도 않다. 체통의 탈을 쓰고 비열한 생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속으로 삼키는 일은 공공연하게 나타내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생각을 품고 있다면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야만 반론을 제기하고 그 반론에 의해 토론과 합의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품위는 있지만 위선적인 문화를 가진 사회, 모욕적이지만

위선적이지 않는 문화를 가진 사회, 어느 쪽이 더 나은 사회일까? 이 부분에서 필자의 사생활에서 아내와 항상 다툼의 소지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필자는 좀 모욕적이지만 위선적이지 않는 행동 쪽을 택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회생활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품위 있고 정의로운 사회는 인간 존재 자체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적당한 경쟁적인 생활양식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고통과 편협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관용을 사회적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를 뜻한다. 정의롭고 품위 있는 행동은 자기에겐 어울리게 시리 행동하며 저마다 자기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개인의 권리에 바탕을 두고 있을 때만 그 사회의 정의와 품위가 가치 있게 나타나는 것이다. 정의롭지만 가난한 사회를 택할 것인가? 정의롭지 않더라도 안정적이고 잘 사는 사회를 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자신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가혹한 일일지도 모른다.

-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정의다. 정의로운 것은 또한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